

번호: OP-G-001					
제 목	노인의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social activities on physical functioning in older persons				
저 자 및 소 속	박경혜, 이운환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Kyunghye Park, Yunhwan Le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Ajou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분 야	의료관리 [노인보건]	발 표 자	박경혜 일반회원	발 표 형 식	구 연
<p>목적: 노인의 사회활동과 신체기능간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많다. 그러나 노인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신체기능이 좋은 것인지, 신체기능이 좋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들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사회활동과 신체기능의 두 요인중 어떤 요인이 선행요인인지를 밝히고, 덧붙여 그 설명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p> <p>방법: 2001~2003년에 걸쳐 수행된 수원시 종적 노화연구(SLAS)의 1, 3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65세 이상 재가노인 537명의 사회활동(친척·친구·이웃과 접촉빈도, 종교 및 문화활동) 점수와 신체기능(PF 척도) 점수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1차년도 사회활동 점수-3차년도 신체기능 점수간의 상관과 1차년도 신체기능 점수-3차년도 사회활동 점수를 상관분석을 통해 선행요인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위의 상관분석을 통해 예측지표로 추론되는 변수와 목적변수(predicted variable)간에 선행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설명력을 살펴보았다.</p> <p>결과: 1차년도 사회활동-3차년도 신체기능간의 상관분석과 1차년도 신체기능-3차년도 사회활동간의 상관분석을 비교한 결과, 1차년도 사회활동-3차년도 신체기능의 상관계수가 더 높았다. 각각을 회귀분석한 결과 1차년도 사회활동-3차년도 신체기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인들(연령, 성, 교육수준)과 건강관련 변인들(주관적 건강인식, 만성질환의 개수)을 통제한 후에도 신체기능에 미치는 사회활동의 영향은 유의하였다. 그 설명력은 4.5%였다. 한편 1차년도 신체기능-3차년도 사회활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인구사회학적 변인들과 건강관련 변인들을 통제한 결과 사회활동에 미치는 신체기능은 유의하지 않았다.</p> <p>결론: 위의 결과는 사회활동과 신체기능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활동이 신체기능보다 선행함을 시사해준다. 즉, 사회활동이 신체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노인의 사회활동이 많을수록 신체기능이 양호하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노년기 건강상태 증진을 위해서도 노년기 사회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노인의 사회활동과 신체기능간의 선행요소를 파악한 결과는 노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나 정책 마련에 있어 우선순위와 비중고려 등의 계획과 지원에 있어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p>					